

#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 분석\*

##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and Family Life Cycle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 魯潤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李蓮淑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

Master : Yun Joo Noh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Associate Prof. : Yon Suk L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over family life cycle. The data used in the study is the 1994 Survey data from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he study sample included 26,980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living in cities. The family life cycle was classified into six stages and items of expenditure were classified into 12 categories. Frequency distribution, mean, one-way ANOVA, Scheffé 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average consumption propensity differs among family life cycle. Second, the amount and budget sha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for each expenditure category differ significantly among family life cycle in all expenditure categories. Third, family life cycle is found to be a significant factor on expenditure of food and education, and also on budget share of education.

\* 1996년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의 일부임.

## 1. 서론

가계는 가정 생활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私경제 단위이다. 가계의 소비란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생명력을 재생산하며 가족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Fitzsimmons & William, 1974)을 의미한다. 가계소비지출은 민간소비지출의 주체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경제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이며, 가계의 소비행위는 경제활동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국민경제의 생산 구성과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가계의 소비생활은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양세정, 1991).

이러한 가계 소비의 중요성으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은 양적·구조적인 면에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가계 소비를 다루는 연구는 시계열자료를 통한 소비 지출의 분석(김순옥·신효식, 1980; 윤정혜, 1984; 최은숙, 1986; 최배홍, 1989; 배연수·한재숙·김정숙, 1990; 양세징, 1991; 양세정·유재은, 1992; 김정숙, 1992; 박선미·김영숙, 1992)과 소비 지출 분석을 통해 소비지출 함수를 추정한 연구들(최은숙, 1986, 1990; 최배홍, 1989)이 대부분이다. 또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인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김영숙, 1990; 정은주, 1993; 박영미, 1996)가 있고, 소비지출 비목별 성격을 규정하여 선택적 소비지출을 다룬 연구(이성민, 1992; 강이주, 1995)가 행해졌으며, 소비패턴을 다룬 연구들(강이주·박명희, 1990; 김기옥·이승신, 1990; 정영숙, 1993)도 있다. 가족의 발달적 개념인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 경제 행위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가계 경제 변동을 다룬 연구(서병숙·임혜경, 1984)와 가계 저축행태를 분석한 연구(조희금, 1984), 그리고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범수인·문숙재, 1992)와 농가경제를 분석한 연구(최현자·최은숙, 1986) 등이 있다.

가계의 소비라는 행위는 자녀출산, 자녀의 학교입학·졸업, 자녀의 결혼 등 가족의 구성, 가족의 형태, 가족구성원이 접하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의 변

화를 통한 시간적 흐름의 연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가족의 소비를 다룰 때에는 이러한 흐름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족의 합리적인 가계운영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가계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는 가족생활주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한 채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인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가계 소비지출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가족생활주기에 초점을 둔 도시 가계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소비지출 상황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가계 재정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을 분석하는 연구는 가계소비지출을 자신들이 처한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족생활주기 단계마다 가족원들의 요구와 필요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올바른 소비계획을 수립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합리적인 가계운영과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가계 장기 계획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 교육가와 정부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소비정책 수립과 소비문화 형성을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생산·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에게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의 소비요구와 소비행태를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도출해 내는데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생활주기

#### 1) 가족생활주기의 개념

한 가족은 두 사람의 결혼으로 형성되어 자녀를 가지면서 점점 확대되었다가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하면서부터 다시 축소되기 시작하여 마지막 자녀의

독립과 더불어 다시 부부 두 사람의 가족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최현자·최은숙, 1986:37). 가족생활주기란 일반적으로 가족이 갖게 되는 이러한 보편적인 과정을 가족구성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개념이며, 가족의 주요한 생활주기 내지는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찰하려는 것으로 가족원들의 연령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결혼부터 부부중 한쪽, 혹은 양쪽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한 가족의 일대기인 것이다(Fitzsimmons & Williams, 1973:179).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생활을 단계별로 장기적으로 고찰하여 각 단계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정생활의 리듬과 조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화한 것이므로, 한 가계가 가족생활주기 가운데 처한 위치를 알면 소득수준, 소비자행동, 주부의 결혼만족도, 가족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 등 가정생활의 중요한 요인에 대해 전망할 수 있다(Duvall, 1977:157). 즉, 가족생활주기는 가족구성, 가족형태, 시대나 지역, 생활양식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2) 가족생활주기의 단계

가족생활주기에는 각기 행하는 활동이나 내용이 고유하게 다른, 뚜렷이 구분되는 단계가 나타나는데(조희금, 1984), 여기서 문제는 가족생활의 주기적인 단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는 결혼지속연수, 결혼상태, 자녀의 유무와 연령, 가구주 연령, 만자녀의 연령과 같은 가족의 획기적인 사건의 발생과 같은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이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들이 사용되어 왔다. 분류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단계 구분은 학자에 따라 크게는 3단계부터 24단계까지 다양하게 구분되어 왔다.

대표적인 학자들의 가족생활주기 분류를 살펴보면, Bigelow(1950)는 가계의 수입·지출과 자녀의 교육상태에 따라 가족생활주기를 7단계로 분류하였으며, Duvall(1957)은 인간발달이론에 입각하여 첫자녀의 연령과 학년에 따라 가족생활주기를 8단계로 구분하

였다. 또 Olson등(1983)은 자녀의 연령과 가정내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가족생활주기를 7단계-1단계:자녀없는 신희기 부부, 2단계:미취학자녀(0~5세)를 가진 가족, 3단계:취학자녀(6~12세)를 가진 가족, 4단계:청소년자녀(13~18세)를 가진 가족, 5단계:진수기(청소년자녀 19세 이상) 가족, 6단계:빈보금자리(모든 자녀가 집을 떠남) 가족, 7단계:은퇴기(남편 연령 65세 이상) 가족으로 나누었고, 유영주(1984)는 도시거주자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부부가족 중심의 가족생활주기모형을 구성하였는데 가족생활의 단계는 역시 자녀의 성장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기, 자녀 결혼기, 노년기의 6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상과 같이 학자들마다 가족생활주기를 나누는 기준과 단계구분은 다르지만, 공통된 점은 모든 가족이 가족의 형성에서부터 배우자의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 분석을 위한 것이므로, 도시에 거주하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자녀의 교육상태를 기준으로 가족생활주기를 구분한 유영주(1984)의 분류를 기초로 하였으며, 가구주 연령을 가족생활주기 분류를 위한 추가 기준으로 설정하여 가족생활주기를 6단계로 분류하였다. 1단계는 형성기, 2단계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3단계는 자녀 초등교육기, 4단계는 자녀 중·고등 교육기, 5단계는 자녀 성년기, 마지막 6단계는 노년기로 구분하였다. 6단계인 노년기는 본 연구가 근로자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가구주가 은퇴하기 前의 노년기이다.

## 2. 소비이론

Keynes(1936)는 소비가 그 자신의 소득, 다른 객관적인 부수적인 환경, 각 개인의 주관적인 필요와 심리적 영향과 관습 그리고 개개인사이에 소득이 분배되는 제 원리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소득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으므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기본적으로 현재소득

에 의해 결정되는 매우 안정적인 함수라는 절대소득 가설을 전개하였다. 절대소득가설에 따르면 현재의 소비는 현재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도 증가하나 그 소득의 증가량만큼 증가하지 못하여 한계소비성향이 0에서 1사이의 양(+)의 값을 갖는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Duesenberry(1949)는 절대소득가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의 소비는 자신의 절대소득수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득과 비교한 상대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상대소득가설을 제시하였다.

Friedman(1957)은 Keynes의 절대소득가설을 부인하고 개개인의 소비는 현재소득보다도 미래의 기대소득을 고려한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는 항상소득가설을 전개하였다. 항상소득이란 전 생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평균기대소득이며, 소비는 현재소득이 아니라 항상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김기화, 1991)고 하였다.

Modigliani와 Ando(1963)는 소비함수의 단기와 장기를 차이점을 설명하는 생애주기소득가설을 제시하였다. 생애주기소득가설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전 생애에 걸친 재산을 포함한 소득에 근거하여 소비를 결정한다고 한다. 소비가 기대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점에서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소득가설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생애소득가설에서는 기대소득을 재산소득과 노동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항상소득가설에서는 기대소득을 항상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두 가설의 차이점이다.

###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소비 관련 연구

가계소비에 관해서는 시계열분석과 횡단분석을 통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소비함수를 다루는 연구는 주로 거시적 시계열관계의 도출에 중점을 두어 왔고(최은숙, 1986:26), 가족특성변수와 관련한 연구는 횡단분석을 통해 소비지출비목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행해져 왔다.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라는 가족의 특성에 따른 가

계소비지출 분석을 위한 것이므로, 이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변수 및 가정생활주기가 11개 지출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Wisconsin주 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최은숙(1983)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25~48세이고 자녀가 0~5세인 2단계에서 피복비와 자동차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며 자녀가 6~11세인 3단계에서는 가구, 가계설비, 교육비지출이 가장 큰 단계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변동에 관한 서병숙과 임혜경(1984)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를 결혼기간과 첫자녀의 교육상태를 구분인자로 선정하여 7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가계동향을 분석하였다. 첫자녀의 교육이 끝나고 기혼자녀가 있는 단계에서 총수입이 가장 많고 첫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제5단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며 자녀출산전과 첫자녀의 국민학교 교육기, 그리고 교육은 끝났으나 아직 기혼자녀가 없는 시기에 자산 축적의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하였다.

최현자와 최은숙(1986)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경제분석에서 농가의 생활주기를 가구주 연령과 자녀성장을 근거로 8단계로 구분하여 6개 지출비목의 소비지출을 분석하고 소비지출함수를 추정하였다. 가정형성기인 1단계는 가구원수에 비해 소득은 비교적 높으나 소비가 크게 나타났고, 2단계인 자녀출산기는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자녀의 초등교육기인 3단계는 주거비, 피복비, 음식물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자녀의 중·고등교육기인 4단계는 가계비지출이 급증하는 시기로 교육비의 급격한 상승을 보이며, 피복비, 교통비도 쏠 단계 중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낸다. 5단계는 자녀의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로 가계가 쏠 단계 중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 시기이다. 다음 6단계는 자녀독립기로 가구원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많아 경제적인 압박이 큰 단계라고 보았다. 7단계는 자녀결혼 후 노부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야 할 재적응기로, 이 시기는 전체 소비지출액이 감소하지만 저축율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마지막 단계인 8단계는 가정해체기인데 이 단계에서는 전 비목의 소비가 감소하며

소득이 최저인 시기이지만, 저축액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하였다.

가정생활주기가 가계소비지출의 크기와 구성의 결정요인이라는 Johan(1979)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를 미혼기(Bachelor), 신혼기 가족(Newly married), 확대기 I 가족(Full nest I), 확대기 II 가족(Full nest II), 빈보금자리 가족(Empty nest), 은퇴기 가족(Solitary survivors)의 6단계로 분류하여 소비지출을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사치재에 대한 지출이 많았고, 식료품, 주거, 가구집기·가사용품의 지출 비중이 적었으며, 2단계에서는 식료품, 주거, 가구집기·가사용품의 지출이 많고, 피복·신발, 교육,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이 적었다. 3·4·5단계에서는 식료품, 교통, 주거비의 순으로 지출구성 비중을 보였으며, 보건의료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며, 마지막 6단계에는 식료품, 주거, 가구집기·가사용품의 순이었으며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이 낮았다. 결론적으로 가계소비지출의 크기와 구성은 가족생활주기와 체계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소비생활문제를 규명하려는 홍향숙과 이기춘(1989)은 가족생활주기를 형성기, 자녀출산·양육기, 국민학교기, 중·고등학교기, 대학 및 자녀결혼기, 노년기의 6단계로 구분하여 소비생활문제를 연구하였다. 노년기를 제외한 모든 단계의 가계에서 재산관리와 증식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2단계는 주택문제 수준이, 3단계는 비공식적 자녀교육비 문제 수준이 높았으며, 5단계에는 공식적 자녀교육비 문제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에는 기타 단계보다 건강의료비 문제와 여가선용 문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자녀성장, 가족구성의 변화등으로 인해 계속 변화하는데, 가계 소비지출은 이러한 가족생활주기의 진행에 따라 그 크기와 구성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자료

본 연구의 소비지출 분석을 위해 1994년 도시가계연보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도시가계연보는 1963년 이래 매년 전국의 전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 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계통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 등에 대해 조사·수집하고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비목별 지출은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하였고, 가계소득, 가구원수, 주거상태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면접조사에 의하였다. 非근로자가구는 소득의 원천과 소득액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구 3,394가구의 12개월 자료인 40,728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본 연구내용에 부합하는 가족생활주기 설정으로 분석대상에 사용된 자료는 26,980(전체의 66.2%) 가구이다.

#### 2. 가족생활주기 분류

본 연구에서 사용될 가족생활주기는 우리나라 가정생활의 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가족생활주기를 설정한 유영주(1984)의 분류를 기초로 하였다. 왜냐하면 본 연구가 도시 근로자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첫자녀의 교육상태는 해당가족의 소비생활을 결정짓는 유의한 기준임이 선행연구(Kirkpatrick, 1934 ; Bigelow, 1950 ; Duvall, 1957 ; Rodgers, 1962 ; 이은숙, 1969 ; 유영주, 1984 ; Olson 등, 1983)에서 밝혀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 자료의 성격상 자녀가 어떤 학교급에 재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자녀의 연령을 재학하고 있는 학교급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였다. 또 가족생활주기를 분류함에 있어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가족생활이 한 가족의 형성, 확대, 축소의 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Fitzsimmons & Williams, 1973:179),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가족생활주기의 진행은 필연적이

므로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 ① I 단계(형성기)는 결혼하여 첫자녀 출산전의 부부 둘만의 시기이며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이다. 보편적인 형성기 가정의 남편 연령은 35세 이하로 볼 수 있지만 남편의 연령이 35세~39세인 경우가 본 자료에서 소수이지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39세 이하까지로 가구주의 연령을 제한하였다.
- ② II 단계(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첫자녀 출산으로부터 첫자녀 초등학교 입학전 시기로 가구주 연령 49세 이하, 첫자녀의 연령이 0~5세인 가정이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시기의 가구주 연령은 보통 39세 이하로 볼 수 있는데, 가구주 연령을 49세 이하로 한 것은 남성이 30대 후반 또는 40대에 결혼을 하게 되어 가정을 꾸려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병숙·임혜경(1984)의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편의 연령이 40~44세에 분포하는 경우가 있었다.
- ③ III 단계(자녀 초등교육기)는 첫자녀의 초등학교 교육 시기로 가구주 연령 59세 이하, 첫자녀의 연령이 6~13세인 가정이다. 유영주의 분류에서 개별 단계로 설정했던 자녀교육기를 초등학교 시기와 중·고등학교 시기의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자녀가 초등교육을 받는 시기와 중등교육을 받는 시기에 교육비지출 등의 가족관심사에 따른 소비생활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구분한 것이다.
- ④ IV 단계(자녀 중·고등교육기)는 첫자녀의 중학교·고등학교 교육 시기로 가구주 연령 59세 이하, 첫자녀의 연령이 14~19세인 가정이다.
- ⑤ V 단계(자녀 성인기)는 첫자녀의 대학 교육, 취업, 군복무 및 막내 자녀 독립전까지의 시기로

가구주 연령 40세 이상이고 첫자녀의 연령이 20세 이상인 가족이다. 가구주의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가구주의 결혼이 성년인 20세에 성립되었다 해도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기까지에는 20년의 기간이 걸리므로 4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 ⑥ VI 단계(노년기)는 막내자녀 결혼 후 부부 둘만 남는 시기로 배우자 사망전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시기이다.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자녀가 모두 독립하여 부부 둘만이 있는 시기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근로자가구이므로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정이다.

### 3. 소비지출 세부비목 분류

가계소비지출 비목의 분류는 도시가계연보를 기준으로 본 연구자가 조정하였다. 도시가계연보에서는 지출비목을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의 9대 비목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비목을 12개로 세분하였다.

먼저 식료품에 포함된 외식을 별도의 비목으로 하였는데, 이는 197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의 외식비 지출 현실을 감안할 때<sup>1)</sup>,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상 교육비의 지출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로 보아 교육비를 교육교양오락 비목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비목으로 분류하였다. 기타소비지출에 해당하는 품목 중 잡비에는 경조비·종교관계비·회비 및 교제비·관혼상제비 등이 포함되는데, 이 잡비의 구성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sup>2)</sup> 이를 따로 세분하였다. 이렇게 세분한 가계소비지출 12개 비목의 세부적인 정의는 <표 1>과 같다.

1) 양세정(1991)의 도시 가계의 소비지출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70년 0.9%이던 외식비 지출 비중이 1990년에는 7.0%로 증가율 688.9%를 보이고 있다.

2) 양세정(1991)의 앞의 논문에 의하면, 1980년 6.0%이던 잡비의 구성비가 1990년에는 14.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1〉 가계 소비지출 비목의 세부적 정의

지출비목	세부항목
식료품비	곡류, 육류, 유란, 어패류, 채소 및 해초, 과일, 유지 및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음료, 주류, 식료품 관련 서비스
외식비	식사대, 음주대, 기타 외식
주거비	월세, 주택설비수리, 기타 주거비
광열·수도비	수도료, 전기료, 연료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일반가구, 가정용 기구, 식기 주방용품, 가사 잡화 및 소모품, 침구 및 직물 제품, 가사 서비스
피복 및 신발비	의의, 스웨터 및 셔츠, 내의, 직물 및 실, 기타 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 서비스
보건의료비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비	납입금, 기타교육, 문방구,
교양오락비	신문도서, 교양오락용품기구, 교양오락 서비스
교통통신비	공공교통, 개인교통, 통신
잡비	경조비, 종교관계비, 회비 및 교제비, 관혼상제비, 기타 잡비
기타소비지출비	담배, 이·미용, 장신구

4.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평균소비성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비목별 소비지출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족생활주기는 도시 근로자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분석방법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른 평균소비성향과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구성비를 평균과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연구문제 3〉의 분석을 위해서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구성비의 평균의 차이를 일원분

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족생활주기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생활주기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모든 자료의 분석은 PC SAS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족생활주기 단계 구분에 의해 설정된 가족 수는 총 26,980가구였으며 이 중 1단계인 형성기는 2,205가구(8.17%), 2단계 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7,580가구(28.09%), 3단계 자녀 초등교육기는 7,666가구(28.41%), 4단계 자녀 중·고등교육기는 4,348가구(16.12%), 5단계 자녀 성인기는 4,372가구(16.20%), 그리고 6단계인 노년기는 809가구(3.00%)였다. 각 단계별 사회경제적 특성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

가족생활주기		가족생활주기						전 체 (N)
		형성기 (N=2,205)	자녀출산 및 양육기 (N=7,580)	자녀 초·중·고등 교육기 (N=7,666)	자녀 중·고등 교육기 (N=4,348)	자녀 성인기 (N=4,372)	노년기 (N=809)	
변 수								
가족수	2인	100.0	0.0	0.0	0.0	0.0	100.0	26,980
	3인	0.0	57.1	14.9	11.7	27.7	0.0	
	4인	0.0	41.7	75.1	58.8	36.7	0.0	
	5인	0.0	1.3	9.4	26.4	25.8	0.0	
	6인 이상	0.0	0.0	0.6	3.1	9.8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명)	2.00	3.44	3.96	4.22	4.20	2.00	3.68
가구주 연령	29세 이하	62.0	26.9	0.0	0.0	0.0	0.0	26,980
	30~39세	38.0	71.8	71.4	9.9	0.0	0.0	
	40~49세	0.0	1.3	27.5	81.3	27.1	0.0	
	50~59세	0.0	0.0	0.3	8.9	59.9	49.9	
	60세 이상	0.0	0.0	0.0	0.0	13.0	5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세)	28.66	31.40	37.77	44.46	52.92	60.18	39.44
가계소득	100만 미만	28.6	27.2	17.4	12.4	8.0	35.4	26,980
	100만~150만	36.7	36.8	33.7	28.3	20.2	25.2	
	150만~200만	18.8	20.0	23.4	24.7	24.3	11.0	
	200만~250만	6.9	9.0	13.4	15.8	17.9	10.5	
	250만 이상	9.0	7.0	12.1	18.9	29.5	1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원)	1,450,301	1,442,433	1,647,068	1,894,800	2,174,536	1,602,399	1,697,553
가구주 직업	전문·관리직	7.7	8.6	8.6	12.7	14.0	18.3	26,980
	기술직	20.0	14.3	16.9	13.2	14.0	4.9	
	사무직	25.1	25.2	16.0	10.5	11.5	6.4	
	판매·서비스직	9.0	4.4	5.4	5.0	4.2	8.9	
	노무직	38.2	47.6	53.1	58.7	56.3	6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3.1	6.2	19.8	33.5	39.6	44.8	26,980
	고졸 이하	51.2	51.3	48.3	39.0	38.5	33.3	
	대졸 이하	42.3	38.2	29.3	22.2	17.5	17.9	
	대학원 이상	3.5	4.3	2.6	5.3	4.5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거유형	자가	9.8	21.7	42.1	62.8	76.7	79.4	26,980
	전세	59.3	58.1	42.0	25.5	15.7	16.1	
	월세	30.9	20.2	15.9	11.7	7.6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부취업여부	취업	41.5	13.9	35.8	47.6	32.4	27.4	26,980
	비취업	58.5	86.1	64.2	52.4	67.6	7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백분율이 100%가 아닌 경우는 반올림에 의한 것임.



2.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가처분소득과 평균소비성향

먼저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소비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처분소득을 산출하였다(〈표 3〉 참조). 가처분소득은 5단계 자녀 성인기 가족이 가장 많은 1,952,975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4단계, 3단계, 1단계 순이었다.

전체 가족의 평균소비성향은 72.61%였는데,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평균소비성향은 노년기에 가장 높은 79.61%로 나타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이후의 가계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노년기 단계는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후 부부 둘만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소비성향을 보였다는 것은 그동안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았던 중년기를 지나 노후를 맞아 식료품비나 보건의료비, 잡비 등에 들어가는 비중이 이전 생활주기에 비해 많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 중·고등 교육기의 평균소비성향이 78.05%로 나타나 자녀성장과 교육에 따르는 여러 소비지출로 인해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생활주기별 평균소비성향을 네가지 소비이론과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가처분소득이 가장 많은 5단계 자녀 성인기 가족

의 평균소비성향은 전체 가족생활주기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6단계 노년기 가족의 가처분소득은 네 번째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지만, 가장 높은 평균소비성향을 보였다. 따라서 Keynes(1936)가 주장한 절대소득가설 이론이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Duesenberry(1949)의 상대소득가설을,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소비수준을 가족의 소비수준으로 대체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구 결과 4단계와 5단계 가족의 높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6단계에 소득수준이 낮아졌지만 이전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년기 가족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감소율에 비해 오히려 소비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듯 以前 가족생활주기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 감소율을 능가하는 소비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상대소득가설 이론은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가족들의 소비행동에 부합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Friedman(1957)이 주장한 항상소득가설에서는 단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소비성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항상소득가설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

〈표 3〉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평균소비성향

(단위: 원)

	가족 생활 주기						전 체
	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 초등 교육기	자녀 중·고등 교육기	자녀 성인기	노년기	
소득	1,450,331	1,442,433	1,647,068	1,894,800	2,174,536	1,602,399	1,697,553
소비지출	846,078	926,031	1,075,759	1,335,737	1,430,835	1,062,274	1,113,953
비소비지출	122,029	129,970	152,535	183,433	221,561	268,029	163,328
가처분소득 <sup>a)</sup>	1,328,302	1,312,463	1,494,533	1,711,367	1,952,975	1,334,370	1,534,225
평균소비성향(%) <sup>b)</sup>	63.70	70.26	71.98	78.05	73.26	79.61	72.61

a) : (소득-비소비지출)로 계산됨

b) : (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으로 계산됨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Modigliani와 Ando(1963)의 생애주기 소득가설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가설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결과,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6단계의 가족생활주기에는 소득이 낮고, 4단계와 5단계의 중년기에는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가족생활주기마다 평균소비성향과 소비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네가지 소득가설을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 측면에서 검증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가계의 소비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가설을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 4가지 가설 중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소비이론은 생애주기소득가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소득가설도 부분적으로는 가족의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설이라고 판단된다.

3.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구성비의 일반적 경향

먼저 전체 가계의 총소비지출액은 1,113,953원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가족생활주기 단계 중 가장 많은 소비지출액을 기록한 단계는 5단계 자녀 성인으로 월 평균 1,430,835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는 4단계 자녀 중·고등교육기였으며, 소비지출을 가장 적게 한 단계는 1단계 형성기로 나타났다.

전체 가족의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구성비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가족의 지출구성비를 보면, 식료품비의 비중이 24.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잡비가 14.92%, 교통통신비가 9.29%, 외식비가 9.12%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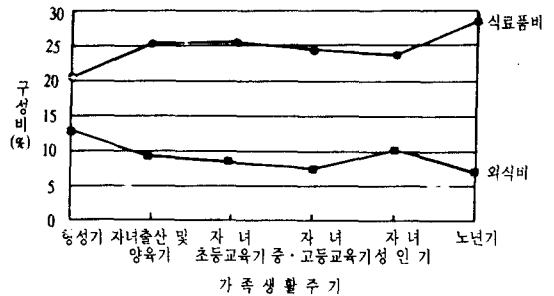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구성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단계에서 식료품비의 구성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잡비의 구성비가 자녀 중·고등교육기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식비를 제외한 식료품비의 지출은 형성기 가족만이 총 소비지출의 20%를 조금 넘는 지출을 하였고, 나머지 단계에서는 모두 25%전

지출비목	액수				액수 (원)	구성비 (%)
	50,000	100,000	150,000	200,000		
식료품	[Bar]				231,295	24.62 ①
외식	[Bar]				93,976	9.12 ④
주거	[Bar]				41,358	3.66 ⑫
광열·수도	[Bar]				43,489	4.82 ⑧
가구집기 · 가사용품	[Bar]				58,346	4.34 ⑩
피복 및 신발	[Bar]				86,303	7.72 ⑤
보건의료	[Bar]				52,681	4.84 ⑦
교육	[Bar]				97,347	7.68 ⑥
교양오락	[Bar]				54,636	4.15 ⑪
교통통신	[Bar]				138,105	9.29 ③
잡비	[Bar]				167,475	14.92 ②
기타소비지출	[Bar]				45,861	4.54 ⑨

\* 구성비 옆의 번호는 총소비지출 중 각 비목이 차지하는 구성비 비중의 순위임.

<그림 1> 전체 가족의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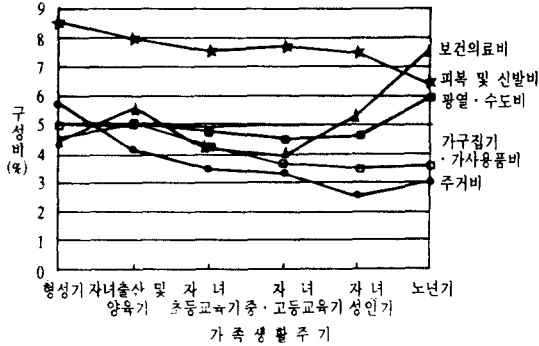
후의 지출을 하고 있었다. 노년기의 식료품 지출은 28.35%로 가장 높은 지출 구성비를 보였다(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른 비목별 소비지출 구성비 변화는 <그림 2>, <그림 3>, <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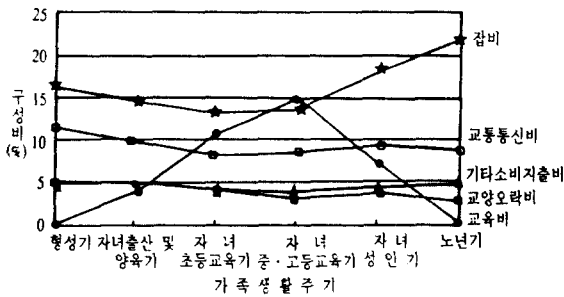
<그림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식료품비, 외식비 구성비의 변화

순 단계에서 잡비의 비중이 식료품비 다음으로 높은 비율(14.92%)을 나타냈는데, 이는 잡비의 구성 항목이 경조비, 종교관계비, 회비 및 교제비, 환관상제비등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풍습상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자신들

둘러싼 인적 환경적인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구성비의 변화



〈그림 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잡비, 기타소비지출비 구성비의 변화

다음으로 교통통신비가 총소비지출의 9.29%를 차지해 12개 소 비목 중 3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도시 가계의 소비지출을 다룬 양세정의 연구(1991)결과 1970년의 교통통신비 비율이 총소비지출 중 5.4%를 나타내 9대 비목 중 6순위를 기록했고 1990년의 교통통신비 비율은 5순위(8.4%)를 차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교통통신비 지출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가용 소유 가족이 늘어나면서 차량유지비와 자동차 할부금 납부로 인한 개인교통비 지출이 많아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식비 지출이 소 소비지출 비목 중 4순위(9.12%)로 나타났는데, 외식비가 식료품비 지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8.89%인 점을 감안

해 볼 때 외식이 식생활의 새로운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외식 문화 풍토와 외식 산업의 양적인 팽창으로 인해 외식이 생활의 일부로 되어 가고 있는 사회상(소비자시대, 1996/6:27)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소비지출 비목 중 5순위(7.72%)를 기록한 피복 및 신발비는 가족생활주기 소 단계에서 비슷한 구성비율을 나타냈고, 이 비율은 1990년의 8.9%(양세정, 1991)보다 감소된 수치로 피복 및 신발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복 및 신발비 다음으로는 교육비(7.68%), 보건의료비(4.84%), 광열·수도비(4.82%), 기타소비지출비(4.54%), 가구집기·가사용품비(4.34%), 교양오락비(4.15%), 주거비(3.66%) 순의 소비지출 비중순위를 나타냈다.

#### 4. 가족생활주기 단계가 비목별 소비지출액에 미치는 영향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소비지출액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지출 비목별 소비지출액 평균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표 4〉 참조). 그리고 가족생활주기가 비목별 소비지출액을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생활주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R<sup>2</sup> 값을 산출하였다.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른 소비지출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비목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를 보면 월평균 총소비지출비는 5단계 자녀 성인기 가족에서 가장 많은 1,430,835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형성기 가족이 월 846,078원을 지출해 가장 적은 액수를 지출하고 있었다. 집단별 차이를 보면, 3단계 자녀 초등교육기 가족과 6단계 노년기 가족이 집단간 소비지출에 차이가 없었다.

〈표 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비목별 소비지출액에 대한 분산분석과 회귀분석 결과

(단위: 원)

지출비목	가족생활주기		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 초등 교육기	자녀 중·고등 교육기	자녀 성인기	노년기	F-값	'R <sup>2</sup>
	평균	Scheffé								
총 소 비 지 출	평균		846,078	926,031	1,075,759	1,335,737	1,430,835	1,062,274	230.29	0.0409
	Scheffé		E	D	C	B	A	C	***	
식 료 품	평균		146,007	201,107	235,067	274,309	278,497	224,579	590.13	0.0986
	Scheffé		D	C	B	A	A	B	***	
외 식	평균		100,695	80,293	87,890	95,098	129,531	63,373	167.28	0.0301
	Scheffé		B	D	C	B	A	E	***	
주 거	평균		44,310	35,579	39,087	50,941	43,244	47,270	5.31	0.0010
	Scheffé		ABC	BCD	BC	A	ABC	AB	***	
광 열 · 수 도	평균		32,203	38,907	43,464	49,001	51,984	41,896	154.97	0.0279
	Scheffé		E	D	C	B	A	CD	***	
가 구 집 기 · 가 사 용 품	평균		50,778	53,578	57,953	59,534	69,348	62,088	3.34	0.0006
	Scheffé		B	B	AB	AB	A	AB	**	
피 복 및 신 발	평균		72,362	75,303	81,501	103,413	106,427	72,134	60.54	0.0111
	Scheffé		B	B	B	A	A	B	***	
보 건 의 료	평균		38,184	49,960	47,369	50,875	73,068	67,550	45.25	0.0083
	Scheffé		C	B	B	B	A	A	***	
교 육	평균		5,573	36,735	111,797	207,926	129,644	9,631	542.50	0.0914
	Scheffé		E	D	C	A	B	E	***	
교 양 오 락	평균		48,421	51,208	55,138	52,397	66,379	47,495	5.71	0.0011
	Scheffé		B	B	B	B	A	B	***	
교 통 통 신	평균		132,239	127,287	122,620	148,741	171,053	166,964	4.05	0.0008
	Scheffé		ABC	BC	BC	ABC	A	AB	**	
잡 비	평균		134,727	132,184	145,351	188,485	252,910	222,392	193.26	0.0346
	Scheffé		DE	E	D	C	A	B	***	
기 타 소 비 지 출	평균		39,869	42,619	43,451	49,800	56,575	36,322	27.00	0.0050
	Scheffé		C	C	C	B	A	C	***	

\* P &lt; .05, \*\* P &lt; .01, \*\*\* P &lt; .001

식료품비, 외식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잡비, 기타소비지출비의 10개 비목에서 5단계 자녀 성인기 가족의 소비지출액수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비와 교육비는 4단계 자녀 중·고등교육기가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단계였다. 소비지출액 평균의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차이는 비목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비목별 소비지출액을 회귀분석한 결과 가족생활주기의 영향력이 가장 큰 비목은 식료품비(9.86%)였고, 교육비, 잡비, 외식비의 순서로 나타났다. 외식비 지출은 가족생활주기의 설명력이 낮기는 하지만, 가족생활주기 단

독 변수의 설명력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인 가족수, 가계소득, 가구주 직업, 가구주 교육수준, 주거소유 유형, 주부 취업 여부, 계절의 7개 변수들에 의한 설명력(14.69%)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가족생활주기의 단독 변수 효과가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 변수는 가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 5. 가족생활주기 단계가 비목별 소비지출구성비에 미치는 영향

소비지출구성비가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지출 비목별 구성비

평균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사후 검증으로  $P < .05$ 수준에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족생활주기가 비목별 소비지출구성비를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생활주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R^2$  값을 산출하였다.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른 소비지출구성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비목에 있어서 단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 참조).

1단계 형성기 가족은 외식비, 주거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비 7개 비목에서 가장 높은 지출 구성비를 나타냈고, 6단계 노년기는 식료품비, 광열·

수도비, 보건의료비, 잡비에서, 그리고 4단계 자녀중·고등교육기는 교육비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구성비 평균은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비목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생활주기 변수가 비목별 소비지출 구성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가족생활주기의 영향력이 가장 큰 비목은 교육비(18.64%)였고, 외식비, 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 구성비는 설명력이 낮기는 하지만 가족생활주기 단독 변수에 의한 설명력이 사회경제적 특성 7개 변수들에 의한 설명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나타나 가족생활주기의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

〈표 5〉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비목별 소비지출구성비에 대한 분산분석과 회귀분석 결과

(단위: %)

지출비목	가족생활주기	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 초등 교육기	자녀 중·고등 교육기	자녀 성인기	노년기	F-값	$R^2$
식료품	평균	20.56	25.39	25.32	24.34	23.68	28.35	96.44 ***	0.0176
	Scheffé	D	B	B	C	C	A		
외식	평균	12.90	9.09	8.52	7.64	10.16	6.96	179.09 ***	0.0321
	Scheffé	A	C	D	E	B	E		
주거	평균	5.72	4.17	3.48	3.31	2.54	3.02	63.94 ***	0.0117
	Scheffé	A	B	C	C	D	CD		
광열·수도	평균	4.63	5.02	4.83	4.50	4.64	5.96	24.24 ***	0.0045
	Scheffé	CD	B	BC	D	CD	A		
가구집기·가사용품	평균	5.13	5.10	4.27	3.69	3.52	3.62	37.35 **	0.0069
	Scheffé	A	A	B	C	CD	BC		
피복 및 신발	평균	8.53	7.95	7.55	7.70	7.48	6.36	12.87 ***	0.0024
	Scheffé	A	AB	B	B	B	C		
보건의료	평균	4.43	5.58	4.23	3.96	5.23	7.60	60.46 ***	0.0111
	Scheffé	C	B	C	C	B	A		
교육	평균	0.35	3.74	10.82	14.82	6.95	0.41	1235.60 ***	0.1864
	Scheffé	E	D	B	A	C	E		
교양오락	평균	4.92	4.77	4.25	3.16	3.77	2.67	39.99 ***	0.0074
	Scheffé	A	A	B	D	C	D		
교통통신	평균	11.50	9.85	8.38	8.67	9.47	8.75	52.30 ***	0.0096
	Scheffé	A	B	C	C	B	BC		
잡비	평균	16.12	14.34	13.34	13.69	18.04	21.70	165.31 ***	0.0297
	Scheffé	C	D	E	DE	B	A		
기타 소비지출	평균	5.04	4.86	4.46	4.06	4.34	4.53	32.58 ***	0.0060
	Scheffé	A	A	B	C	B	AB		

\*  $P < .05$ , \*\*  $P < .01$ , \*\*\*  $P < .001$

주기 변수는 가계 소비지출 구성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계 소비지출을 가족생활주기별로 분석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족생활주기별 평균소비성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로 증가하다가 5단계 자녀 성인기에 일시적으로 낮아지지만 마지막 6단계인 노년기에 가서 평균소비성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둘째, 도시 가계의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구성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식료품비와 잡비, 교통통신비, 외식비 순으로 소비지출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별로 살펴보면 비목별 소비지출액수에서는 5단계인 자녀 성인기 가족이 10개 비목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나타냈고, 비목별 소비지출구성비에서는 1단계 형성기 가족이 7개 비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셋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구성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가족생활주기 변수는 가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가계 소비지출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가계의 소비지출을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有배우자인 은퇴전의 근로자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편모나 편부 가정, 그리고 은퇴이후 가계를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을 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가족생활주기에 초점을 맞춘 단계별 소비지출에 대한 파악은 잘 이루어졌지만, 각 단계에 속하는 개별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각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제외되어 각 단계의 소비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별 가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각 생활주기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심리학적 요인들과 같은 가족관련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외식비 지출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하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무조건 외식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사회풍조가 과소비 행태를 보이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외식이 가계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의 건전한 식생활 문화를 위해서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되며, 정부는 잘못된 과소비 풍조를 개선하고 균형잡힌 영양의 식생활 습관을 위해 바람직한 외식 문화 형성과 함께 건전한 외식 산업의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생활주기 단계 중 자녀 초등교육기부터 자녀 중·고등 교육기, 자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가계 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소비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가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에 부모들은 가계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자녀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금까지의 교육관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시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정책부서에서는 학교교육에서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특별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의 국고 보조 등을 통해 양질의 학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생활주기 순 단계에 걸쳐 잡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소비지출 중 잡비는 15%에 가까운 비중을 보여 가계의 부담 비목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미풍양속으로 자리잡아야 할 경조사 참여 부조비가 부담을 주게 된다면, 그 본의가 상실된 형식적인 소비지출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조비 지출을 줄이고 건전한 경조사 참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결혼·장례 풍속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이주(1995). 선택성 소비지출의 변동을 통한 소비패턴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16, 48-69.
- 2) 강이주·박명희(1990).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2), 84-99.
- 3) 국은경제연구소(1993). 한국인의 소비생활.
- 4) 김기욱·이승신(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1.
- 5) 김기화(1991). 거시경제학. 태진출판사.
- 6) 김순옥·신효식(1980). 전도시 근로자 가계의 소비구조 변동에 대한 연구-1970년 부터 1978년까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8(4), 65-73.
- 7) 김영숙(1990). 한국 가정의 가계소비유형 분석. 소비생활연구, 5, 31-50.
- 8) 김정숙(1992). 도시 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36.
- 9) 김충련(1994). 기초통계분석을 위한 SAS 강좌. 데이타리서치.
- 10) 배연수·한재숙·김정숙(1990). 가계분석에 있어서 Engel curve의 함수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87-101.
- 11) 서병숙·임혜경(198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1), 35-55.
- 12) 소비자보호원(1996).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아 가는 외식문화. 소비자시대, 6, 27-36.
- 13) 소비자보호원(1995). 의료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소비자시대, 8, 35-44.
- 14) 양세정(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8(2), 54-67.
- 15) 유영주(1984). 한국 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1), 111-130.
- 16) 윤정혜(1984).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비지출구조의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85-100.
- 17) 이성민(1992). 도시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9, 53-60.
- 18) 이종원·최현집(1996). SAS를 이용한 통계분석. 박영사.
- 19) 정영숙(1993). 한·미 가계의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 소비생활연구, 12, 34-52.
- 20) 정은주(1993). 기혼여성 취업이 선택적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21) 조희금(198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행태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57-66.
- 22) 최배홍(1989). 한국의 가계 소비구조 변화에 관한 일고찰:가계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23) 최은숙(1986).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24) 최은숙(1990). 우리나라 소비지출 유형의 변화-소비지출함수의 추정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1), 127-158.
- 25) 최은숙(1983). 사회경제적 변수 및 가족생활주기가 가계지출 유형에 미치는 효과 분석. 농학연구, 8(2),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145-154.
- 26) 최현자·최은숙(198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경제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35-51.
- 27) 통계청(1995). 도시가계연보.
- 28) 통계청(1995). 인구주택 총조사 속보.
- 29) 홍향숙·이기춘(1989).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7(1), 1-14.
- 30)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31) Bigelow, H.F.(1950). What are usual Family patterns?. Journal of Home Economics, 42(1), 27.
- 32) Duesenberry, J.S.(1949).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33) Duvall, E. M.(1967). Family Development. 3 ed., New York, Philadelphia:J.B. Lippincott Company.
- 34) Duvall, E. M.(1977). Marriage and the Family Development. 5th ed., Philadelphia:J.B. Lippincott Company.
- 35) Friedman, M.(1957). The theory of consumption

- function. Princeton univ. Press.
- 36) Fitzsimmons, C. & Williams, F.(1973). The family economy. Michigan: Edward Brothers.
- 37) Johan, A. (1979). Family Life Cycle as a determinant of size and composition of household expenditur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6, ed. William Wilkie, Ann Arbor, MI: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128-132.
- 38) Olson, D. H.외 5인(1983).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